정진원의 석보상절 이야기 ⑯ 태자, 출가 수행자가 되다



▶ 한줄요약
슬픔에 잠긴 부모와 부인, 백성들을 뒤로 하고 출가한 싯달타 태자는 스스로 삭발하고 옷을 가사로 갈아입었다. 이후 태자는 설산으로 들어가 고행을 시작한다.

"어찌 수고로운 과보를 구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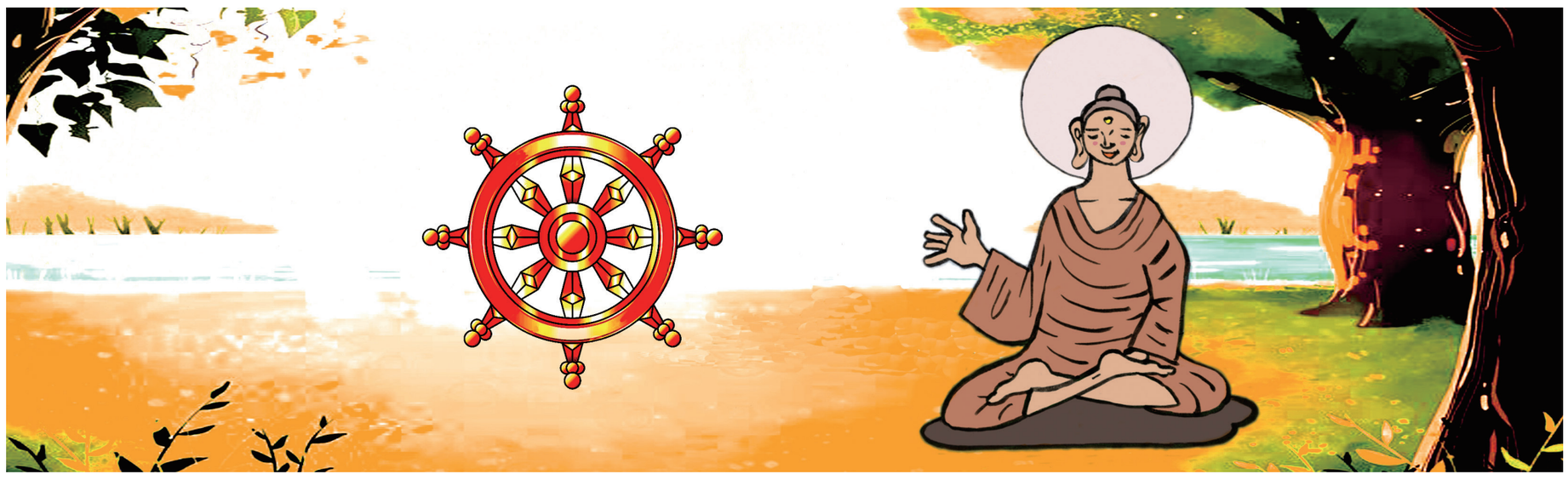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이제 〈석보상절〉 제3권 석가모니의 팔상 중에서 '도솔래의, 비람강생, 사문유관, 유성출가'를 거쳐 다섯 번째 '설산수도'에 대하여 읽을 차례이다. 30여 년 전에 인도에 불교 무식자로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우연히 부처님 성지를 다니게 되었다. 그때 깨달음을 이루고 교화한 곳이 눈덮인 '설산'과 거리가 먼 마가다국에 속했던 보드가야와 라즈기르였다. 놀랍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였다. 아니 왜 설산이 없단 말인가. 뼈만 앙상한 라호르박물관의 고행상은 히말라야 얼음산에서 수행하신 것이 아니란 말인가. 오늘 그 '설산'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다.

슬픔에 잠긴 구이와 부모님, 백성들

태자가 달과 합쳐지는 불성(沸星) 돋을 때 떠나 아침이 되는 사이에 팔백 리를 가서 설산 고행림(苦行林)에 도착하셨다. 림(林)은 숲이다.

이튿날에 구이가 자다가 일어나 땅에 엎드려 우셨다. 정반왕과 대애도께서도 슬피 우시며 나라의 사람들도 다 슬퍼하며 두루 찾아 다녔다.

태자가 보관과 영락을 차닉이 주시고 말씀하셨다. "네가 가서 왕께 여쭈어라. 정각을 이루면 돌아갈 것이다."

차닉이도 울고 말도 꿇어 앉아 태자의 발을 핥으며 울었다.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장면이다. 정반왕은 태자가 태어난 후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며 태자의 출가를 막으려고 갖은 노력을 했던가. '삼시궁'과 예쁜 채녀들로 태자를 받들게 하고 온갖 산해진미와 풍류 속에 태자를 기쁘게 하고자 노심초사했건만 결국은 출가를 결행하였다. 출가 다음 날 태자의 부재를알게 된 가족과 백성들의 비탄에 빠진 모습이다.

태자의 아내 구이는 〈불본행집경〉에 의하면 온몸을 땅에 내던지고 대성통곡하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고 손톱으로 스스로 할퀴며 자해소동을 벌이기까지 한다. 사실 태자는 구이와 결혼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출중한 경쟁상대들과 겨루며 온 힘을 다하여 구이를 맞이하게 되었더란 말인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남자들의 결혼 전후의 태도 변화는 싯달타 태자에게서 비롯된 것일까.

정반왕과 대애도도 슬픔과 충격이 구이 못지않았다. 정반왕은 아들을 부르며 기절하여 쓰러졌고(〈불본행집경〉), 낮이나 밤이나 슬프고 그리운 마음에 목욕재계하고 하늘의 신에게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였다(〈불소행찬〉)고 전한다.

대애도는 '아아 내 아들아'를 목놓아 부르며 얼굴 가득 눈물을 흘리며 몸을 부들부들 떨다가 땅에 뒹굴고 흐느꼈다(불본행집경)고 한다.

바로 눈 앞에서 펼쳐지는 듯 한 이 구체적인 묘사에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만 같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극적인 장면은 한국전쟁 때 헤어진 이산가족 찾기에서밖에 경험하지 못 해서인지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오히려 비현실적인 느낌이 든다.

태자 삭발하고 가사를 입다

태자가 왼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으시고 발원하시되 '이제 머리카락을 잘라 중생들과의 번뇌를 쓸어 버리리라' 하시고 손수 끊어 허공에 던지셨다. 제석이 받잡아 도리천에 가서 탑을 이루어 공양하였다. 이 탑은 천상의 네 탑 중 하나이다.

태자가 자기 옷을 보니 출가한 이의 옷이 아니었다. 정거천이 사냥하는 사람이 되어 지나가니 가사를 입고 있으므로 태자가 곤복(곤룡포)과 가사를 바꾸어 입으시고 말씀하셨다.

"이제야 출가한 사람이 되었도다."

태자가 돌아올 뜻이 없으시므로 차닉이 말과 함께 돌아왔다.

가사는 풀이름이니 그 풀로 가사의 물을 들이므로 이름을 지은 것이다. 사자가 가사입은 사람을 보면 물지 않으므로 사냥하는 사람이 가사를 입는다. 곤복은 용을 그린 관대(冠帶)가 있는 옷이다.

태자의 초발심 출가수행자로서 굳은 의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자신의 머리카락을 손수 끊어내고 왕자의 복식인 곤룡포를 사냥꾼의 가사와 바꿔 입는다. 필자도 몇 년 전 월정사 단기출가학교에 몇 주간 행자 수련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삭발만큼은 일상복귀에 어려움이 많아 결행하지 못하였다. 한 여름이라 매일 전나무 숲길 3보 1배만 하여도 얼마나 덥던지 삭발한 도반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지금도 그때 삭발 못 해본 것이 아쉽다. 번뇌가 많으면 삭발은 세상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배웠다.

정거천은 여기서도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 태자에게 가사를 입힌다. 태자의 인생 요소요소에

슬픔에 잠긴부모, 부인 뒤로하고
출가한 태자, 삭발하고 가사입어
설산 들어가 스스로 고행 시작해
우리 인생서 설산 어떤 의미인가

나타나는 정거천이 부렵다가 나에게 정거천은 누구일까 생각해 본다. 바로 그 순간 어머니가 떠오른다. 〈월인천강지곡〉은 이 대목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오십오장
설산(雪山) 고행림(苦行林)에 머리카락을 깍으시며 번뇌 쓸어버리려 하시니
보관영락(寶冠瓔珞)을 차닉이를 주시며 정각 이루어야 돌아가려 하시니

오십육장
야수(구이) 우시건마는 제석(帝釋)은 뜻이 달라 태자의 머리카락을 탑에 간수하오니
아버님 슬퍼하신들 정거천은 뜻이 달라 태자의 몸에 가사(袈裟) 입히사오니

새들의 합창

태자가 발가산림에 가시니 그 숲에 있는 기러기, 오리, 앵무, 공작, 구욕(鸜鵒:구관조), 원앙, 가릉빈가, 명명(命命), 구시라 등 여러 새들이 태자를 뵙고 각각 좋은 울음을 울며, 그 숲에 있는 벌레, 짐승들도 모두 기뻐 태자께 왔다.

앵무는 말하는 새이다. 가릉빈가는 알 속에서부터 좋은 소리를 내는 새이니 다른 새소리가 미칠 수 없으며 여래말고는 사람이며 하늘이며 긴나라도 미치지 못한다. 명명은 한 몸에 두 머리 가진 새이니 공명(共命)이라고도 하며 기파기파가(耆婆耆婆迦)라고도 한다. 구시라는 모습 이 모양새 나지 않되 소리가 좋은새이다.

발가산림은 페르시아어 'baga(신)'에서 나온 말로 인도 베다 시대부터 재산과 혼인을 관장하는 신으로 등장한다. 'Bhagaban(신)', 'Bhagya(운명)'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 하는데 '바가바드기타(신의 노래)'를 떠올리면 이해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렇게 많은 새가 등장하여 놀라웠다.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불경을 읽다보면 인도에서 유래된 꽃이나 나무, 새들도 신기하지만 그것을 15세기 언어와 사유로 풀이한 협주에 감동하게 된다. 그때도 기러기와 오리가 있었구나. 앵무새는 그때도 말을 하고 구관조, 원앙도 살고 있었다. 더욱이 상상의 새인 가릉빈가, 명명, 구시라에 이르면 옛 사람들의 상상력을 존경하게 된다.

가릉빈가는 여래말고는 아무도 능가할 수 없는 천상의 아름다운 소리를 가진 새이다. '명명'은 '기파기파가'라는 이름이 더 마음에 드는데 한 몸에 두 머리라니 샴쌍둥이 새가 아닌가. 한 몸에 있는 두 새는 하나가 죽으면 다른 하나도 자연히 죽는데 하나가 살면 다른 하나도 살아난다고 한다. 그 둘의 이름은 '카루다'와 '우파카루다'라고 하는데 카루다가 혼자 맛있는 걸 먹었는데 잠들었다가 깨어난 우파카루다가 화가 나서 독버섯을 먹어 함께 죽었다고 한다. 맙소사 하다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러한 어리석은 짓을 얼마나 많이 저지르는가 부끄러워진다. 특히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의 의미를 이쯤에서 되새겨보아야 할 것만 같다.

'구시라'는 볼 품 없는 새인 모양인데 인도에서는 검은 두견새(kokila)라고 한다. 흉한 모습인데 소리가 좋아서 어쩌면 '병풍 뒤에서' 노래하는지도 모르겠다.

태자가 처음 만난 수행자들

그때 그 숲에 바라문들이 제(祭)를 올리기 위하여 소의 젖을 짜니 그 우유가 짜도 짜도 한결같이 나오므로 선인들이 '이 분이 하늘의 신령이시로구나.' 여겨 제물을 가지고 태자를 청하여 앉게 하셨다.

선인들이 다 나무껍질과 잎사귀로 옷 지어 입고 꽃과 과실, 풀, 나무를 먹는 이도 있으며, 물과 불과 해, 달을 섬기는 이도 있으며, 물과 불, 재와 가시나무에 눕는 이도 있었다. 태자가 그 뜻을 물으시니 대답하였다. "하늘에 나고자 하노이다."

태자가 이르셨다. "그대들이 구하는 일이 끝내 수고를 여의지 못할 것이다. 하늘이 아무리 즐거워도 복이 다하면 도로 내려와 마침내 수고로운 길로 가게 되니 어찌 수고로운 인연을 닦아 수고로운 과보를 구하는가."

하시며 저물도록 힐난하시고 이튿날에 '가겠노라' 하셨다. 힐난(詰難)은 서로 말로 다투어 겨루는 것이다.

선인이 사뢰었다. "닦는 도리가 다르니 '계십시오' 라고 못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마디는 바로 '수고로운 인연을 닦아 수고로운 과보를 구한다'이다. 괴로움의 원인을 열심히 농사지어서 괴로움의 결실을 구하는 것.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달리다 보면 어느덧 본질은 사라지고 절제가 지나쳐 물심양면으로 인색해진다든지, 자기만의 규칙을 만들어 남에게도 그 잣대를 들이댄다든지, 일부러 가시밭길을 걸어 피투성이가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나 또한 여기서 얼마나 자유로울까. 석가모니의 팔상 중 '설산수도'의 '설산'은 '설산'이 아니라 '고행림'이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인생이란 설산은 고행림과 같은가 다른가.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

시한부 말기암 신속 소멸되는 의료기기임상실험 경제적 도움주실 분

허리·무릎·목·엉치·다리

수술 시술 근육치료 여러 의료기기



부항 여러가지 치료를 받아도 통증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면 일회 체험하러 오세요.
진짜 거짓말처럼 즉각 효과를 확인해 볼수 있는 발명특허의 세상에 유일한 원리방식의 척추 · 골반 · 목뼈를 조정하는 의료기기입니다.
말기암 환자분들은 반드시 체험하러 오세요. 암을 극복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년엔 암소멸에 대한 임상실험 반드시 하겠습니다.

말기암 환자 세분의 좋은 사례담

사례1 > 식도암과 간암 환자분 홍천에 사시는 65세 남성 5월 12일 삼성병원에서 항암제 주사를 맞으시고 의료기 체험 하러 오셨습니다. 체험해보시고 몸이 편하기는 하나 어떻게 암치료가 되겠는지 못 믿겠다며 의료기 값 중 절반을 주고 다음에 확실히 좋아지면 나머지 대금을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싸우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항암제 주사를 맞고 그렇게 처음 편하게 잠을 잤고 몸이 천근만근하여 아침에 일어나기가 매우 힘들었는데 거뜬하게 일어났다며 믿음이 가신다며 다시 오셔서 의료기를 사 가셨습니다.

사례2 > 남양주시 사는 60세 여성은 2019년 1월 폐암 말기진단을 받고 "선생님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폐에 물이 7리터 이상 차서 병원에 입원해서 100일간 물만 빼고 퇴원한 후 우리가 만든 '척추근육강화기 (의료기)를 꾸준히 활용하여 현재 병원 의사의 "매우 안정적이다" 라는 진단을 받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3 > 2019년 10월 50대 여성이 "병원진찰 결과 간에 암이 세개 발견되고 대장암은 너무 커버려 수술 불가 판정을 받았다"며 찾아왔습니다. 그녀 역시 저희가 특허 발명한 위 의료기를 구입, 한달간 사용 후 간암은 완전히 소멸되고 두달쯤 사용하던 중 어느날 항문으로 피고름이 쏟아져서 무서운 마음으로 급하게 병원을 방문하여 상황을 말씀드리니 "검사 결과 암이 죽어서 거의 다 피고름으로 쏟아졌다"며 이제는 수술하는 게 좋겠다 하여 수술 후 완치됐습니다. 처음 저희 의료기를 불신하던 그분의 형제자매 6남매 모두가 의료기를 구입해,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주 전화하십니다.

의료기 개발자인 저는 "모든 암질환은 대부분 척추변위가 직접 원인"이라고 확신합니다. 척추근육강화기(의료기)는 변위된 척추를 원래 척추로 교정해주는 의료기기입니다. 척추가 좋아지면 항암제부작용도 말기암 통증도 해소됩니다.
※ 질병 퇴치연구를 할수 있도록 도움주실 분 찾습니다.

✲ 소자본 지점모집 ✲

NAVER 척추근육강화기 ▼ 검색

예약 010-6575-7866